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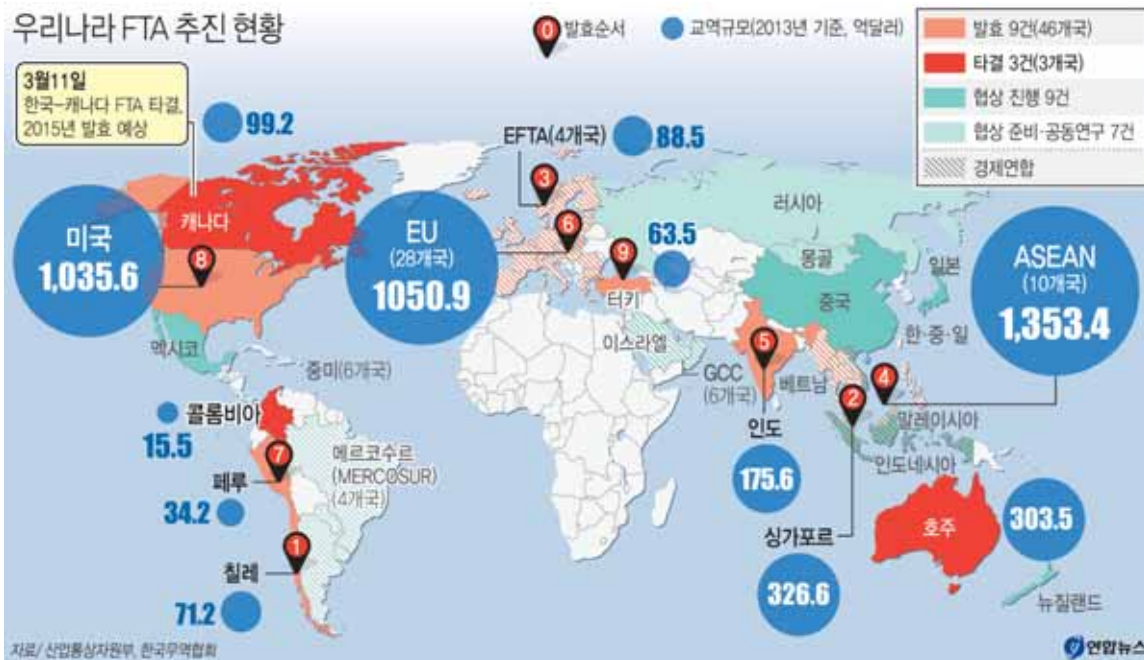
한-캐나다 FTA 타결 지역에 미치는 영향

광주는 “차차車”... 전남은 “우우牛”

한국과 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광주에서는 자동차와 백색가전 등 대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반면 전남에서는 축산업의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돼지고기 수입국 2위인 캐나다의 현행 관세(최대 25%)가 폐지되면 양돈농가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 ‘쏘울’ 날개단다=캐나다가 국산 자동차 및 가전제품, 타이어에 대해 2~5년 뒤 관세를 폐지키로 하면서 광주에 사업장 둔 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 금호타이어의 대(對) 캐나다 수출에 ‘파란불’이 켜졌다.

1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 캐나다 자동차 수출물



▶광주, 자동차·백색가전 수혜

기아차·삼성전자·금호타이어 수출 ‘파란불’

▶전남, 축산업가 타격 불가피

돼지고기 수입 두번째로 많아... 피해 ‘눈덩이’

량은 13만3000대로 미국(75만7000대), 사우디아라비아(19만6000대) 등에 이어 5번째다. 기아차는 북미시장 효과 수출 차종인 ‘쏘울’을 중심으로 지난해 캐나다에서만 6만3543대(국내 생산기준)를 판매했다.

이번 한-캐나다 FTA 타결은 국산차 수출에 ‘영양제’를 바꾼 셈이다. 한국산 자동차가 들어야 했던 관세 6.1%가 발효 시점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는 관세 철폐시 수출 물량 11만6534대(지난해 기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전량 생산되는 쏘울과 스포티지 등은 북미시장에서 인기가 높아 수혜를 볼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재 관세가 6~8%에 이르는 냉장고 및 세탁기 등 가전제품은 품목별로 즉시 또는 3년 내에 관세가 사라지며 7%의 관세를 무는 타이어도 5년 내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은 관세 폐지 즉시 혜택을 입을 전망이며, 최근 일본 요코하마타이어와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제휴

협약을 체결한 금호타이어도 수출 실적 증대를 노릴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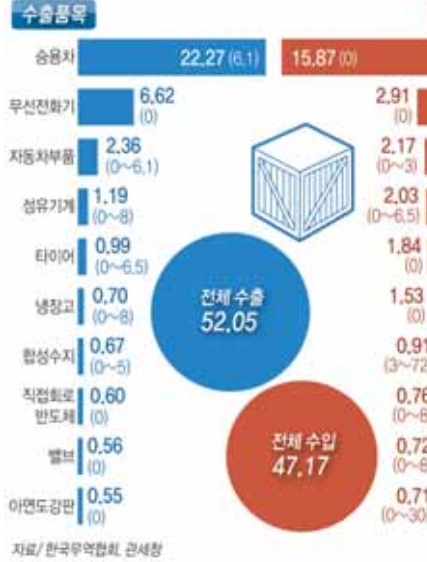
◇전남 양돈농가 직격탄=전남도는 이번 FTA 타결로 도내 축산업이 위축될 것으로 보고, 정부에 한우사육육성법 조기 제정,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및 산지축산물종합유통센터 지원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 내 한우 및 육우 사육두수는 모두 48만두, 돼지는 99만4000두에 이르고 있다. 전국 8개 도(광역시 및 제주도 제외) 가운데 4번째 규모다. 도내에서 한우·육우의 경우 장흥군이 5만 4000두, 돼지는 무안군이 18만두로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다.

이번 FTA 협정으로 쇠고기의 경우 관세 40%를 15년 안에, 돼지고기(22.5~25%)는 세부 품목별로 5년 또는 13년 안에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춰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협정에 따른 파급효과가 곧바로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정부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서둘러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 융자금리 1% 미만 적용 등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 외에 정부

한국-캐나다 10대 교역품목



가 한우의 안정적 공급망 확충, 한우 사육 환경 개선, 사료 값 안정화 대책 등 축산업 경쟁력 향상과 관련된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단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 농가에 미칠 피해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 실제로 지난해 말 한국-호주 간 FTA 협정이 타결됐지만 돼지고기 가격은 상승세에 있고, 쇠고기 가격도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캐나다산 수입량이 많지 않은 데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제외하면 우리 농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도 거의 없다.

지난해 캐나다에서 수입한 쇠고기는 전체 수입 쇠고기의 0.6%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돼지를 사육하는 양돈농가는 일정부분 타격이 예

상된다. 지난해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 물량은 모두 4만3398t(수입액 7976만 달러)이며, 이는 물량 면에서 미국(11만 2000t)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호주에 이어 캐나다와의 FTA 협상 타결로 축산업 피해를 우려해 이를 최소화 할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경우 미국이나 호주의 협정 때와

유사한 조건인 것 같다”며 “관세 완전 철폐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정부가 관련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인들은 사전 대책 없이 계속되고 있는 FTA 협정이 국내 축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다른 산업의 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 농축산업을 협상 카드로 쓰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한국농업경영인 전남연합회 관계자는 “FTA로 인한 영향과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시장 개방 전에 국내 농축산업의 경쟁력부터 갖춰놓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임동욱기자 exian@kwangju.co.kr



박지원 민주당 의원(오른쪽)이 11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참배행사에서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왼쪽), 김옥두 고문 등 동료동계 인사들에게 전남지사 불출마 뜻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적 영광 버리고 정권교체 가시밭길 걷겠다”

박지원 전남지사 불출마 선언... “신당 당명에 ‘민주’ 꼭 넣어야”

전남지사 선거 출마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온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11일 불출마를 선언하고 중앙정치에 매진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오랜 고민 끝에 개인적 영광과 보람이 있는 전남지사직보다 비록 가시밭길의 중앙정치지만 통합신당에서의 역할과 지방선거 승리, 정권교체를 위해 제 몸을 불사하겠다는 심정으로 불출마 결심을 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불출마 결심 배경에는 “호남정치 복원과 정권교체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인들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에 이어 7일 문재인 의원을 만났고 10일에는 이회호 여사를 만났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 여사는 “중앙정치에서 호남의 위치가 가장 약한 지점이다. 차기 대선에서 호남이 씨앗을 뿌리고 영남이 꽃을 피우는 자세로 정권교체에 힘써달라”며 중앙정치 복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복귀이후 곧바로 통합신당 창당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오는 16일 결정 예정인 통합신당 당명과 관련, “일각에서 당명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해하기 어렵다”며 “군사독재와 맞서 싸우며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근간을 만들고 정권 교체를 이룬 역사와 상징성이 담겼다는 점에서 통합신당의 당명에 ‘민주’라는 명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신당 창당 과정과 관련, 박 의원은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의 일방통행이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뒤 “조금 논란이 있더라도 의원총회 등을 통한 ‘소통’을 강화하고 특정 계파를 배제하기보다는 함께 통합신당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측에도 쓴소리를 했다. 박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창당 과정에서 지분을 강요한다면 모두 망하는 길일 것”이라며 “서로가 출신수범 하면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적 감동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에서 통합신당의 바람이 불어야 수도권 등 전국에서 태풍으로 번질 것”이라며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완전개방형 시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지사 후보 경선 방식에 대해서는 불출마 선언 직후라는 점에서 말을 아끼는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통해 흥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나타냈다.

박 의원은 이어 “호남에서 별다른 바람이 일어나지 않고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김황식 전 총리로 정해진다면 서울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호남 표심의 분열과 무관심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선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기에 서울이 흔들리면 경기와 인천 등에서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지원 의원의 중앙정치 무대 복귀로 통합신당 창당 과정에서 지금까지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호남 정치권의 역할 등이 주목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gnju.co.kr

사라진 박지원 변수... 전남지사 경선구도 원점으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야권의 전남지사 경선 구도가 ‘박지원 변수’ 이전으로 원위치됐다.

이에 따라 전남지사 경선은 민주당 이낙연·주승용·김영록 의원, 새정치연합 이석현 전 전남 합령군수 등 4명

이 경합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출마 예정자들의 행보와 지지를 감안하면 3과전으로 압축될 가능성도 있다.

그간 각종 여론조사에 박지원 의원이 최상위권에 위치했던 만큼 박 의원의 불출마로 인한 출마 예정자들의

지지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경선 과정에서 지지도가 높지 않은 일부 출마 예정자의 중도 포기 등 후보 간 합종연횡도 가능해 경선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일부 출마 예정자의 국회의원직 사퇴 등 중대 변수도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불휘 기쁜 남군 보라매 아니떨석 곳도코 여름 하느니

대광여고가 광주교육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教育立國

- 2013학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국영수 보통학력이상 비율 광주 1위(98.7%)
- 2014학년도 서울대 총 6명 합격(최근 15년간 87명 합격)
(의예과 1명, 전기정보공학부 1명, 간호학과 2명, 식품영양학과 2명)
- 2014학년도 대학입시 전국 의·치·한의예과 총 12명 합격
(의예과 7명, 치의예과 2명, 한의예과 3명)
- 2014학년도 대학입시 주요대학 및 학과 합격 현황
- 연세대 4명, 고려대 11명, 이화여대 7명 총 22명 합격
- 교육대 27명, 사범대 54명, 간호학과 57명 합격
- 전남대 165명 합격 - 조선대 152명 합격
- 사법시험 총 22명 합격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742번길 13

대광여자고등학교